

기미마치자카

1868년 무가 제도가 막을 내리고 일본은 근대화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1881년 메이지 천황이 일본 도호쿠 지방을 순행했다. 이 순행은 천황이 행한 최초의 여행이었다. 아키타의 사람들은 천황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천황과 수행원을 위한 새로운 도로와 숙박시설을 만들었다. 기미마치자카에 새 길을 만들기 위해 큰 바위를 손으로 파내고 후지코토강에 다리를 놓았다.

새로 조성된 도로를 이동하던 중 천황은 수행원과 함께 멈춰 서서 강 건너편에 있는 나나쿠라산을 바라보았다. 큰 돌은 천황이 걸터앉아 황후가 보낸 편지를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천황을 만나고 싶다는 황후의 바람을 담은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실려 있었다.

오미야노 우치니(大宮のうちに)
아리테모 아쓰키히오(ありても あつき日を)
이카나루 야마카(いかなる山か)
기미와 고유라무(君はこゆるむ)

황궁 안에 있어도 더운 나날들을,
어떤 산을 당신은 넘어가고 계실까요?

메이지 천황은 이 언덕에서 시와 편지를 받고서 이듬해인 1882년 이 고개에 '기미마치자카', 즉 '당신을 그리워하는 고개'라고 명명하도록 궁내청에 명했다. 그 이후로 후타쓰이 마을은 연애편지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는 기미마치자카의 곳곳에 황실의 사랑 이야기와 관련된 명소가 있어 연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되었다. 또한, 공원에 있는 우체통에 러브레터를 넣어 보내면 사랑이 이뤄진다고 한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